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7.60원 상승한 1,184.40원에 마감

28일 환율은 전일대비 7.60원 상승한 1,184.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50원 오른 1,179.30원에 개장했다. 연준의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가 1.5%까지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주요 주가지수도 하락한 영향에 환율은 1,180원대 초중반으로 상승하였다. 한동안 레벨 부담과 네고물량에 환율은 횡보하는 모습이었으나, 장 후반 위험회피 심리가 심화하여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전일대비 7.60원 상승한 1,184.4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3.77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79.30	1184.80	1179.30	1184.40	1182.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0.14	1065.53	1060.14	1062.1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75.94	1385.68	1375.91	1383.7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1	0.7	1.64	3.89
	결제환율(수입)	0.1	1.63	3.03	6.2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장기금리 상승과 위험선호심리 훼손에... 1,18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4.40원) 대비 3.50원 오른 1,188.5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훼손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매파적 9월 FOMC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 주 대비 20bp 이상 상승하여 1.54%대로 마감하였다. 이에, S&P500지수는 2.04%, 나스닥지수는 2.83% 하락하는 등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하였다. 달러 인덱스는 93.7 선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레벨을 높였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전 앞으로 몇 달 동

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급 병목현상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며 일관된 평가를 했던 파월 의장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다. 다만, 분기 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과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경계는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4.33 ~ 1191.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0.2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50원 ↑
	■ 美 다우지수 : 34299.99, -569.38p(-1.6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6.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0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